

사회

# 의료분쟁 '하세월'... 속타는 환자들

### 의협 진료 감정서 제출 미적미적 재판 장기화 매달 100여건... 4년 지나도 종결안돼 피해 가중

의료소송시법원 판단의 주요 자료로 채택되는 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서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재판이 수년간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재판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28일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8부(부장판사 박재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한 대학병원에서 난소 물혹 제거수술을 받은 반모(여·52)씨는 수술 후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해 슈퍼박테리아균에 감염됐다며 2009년 9월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후 2010년 12월 열린 1심에서는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2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2011년 1월 항소하고, 재판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요청하면서 재판은 1년 넘게 열리지 못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에 전국적으로 진료기록 감정이 폭주하면서 지난 2월9일에서야 감정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변경됐으며, 지난달 법원 인사를 통해 들어선 새 재판부는 소가 제기된 지 3년 여 만인

오는 4월19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정했다. 어렵사리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해당 병원의 의사도 가담돼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서가 재판의 중요자료가 되는 데다 이로 인해 재판 자체가 차일피일 연기된 것에 반감이 높다.

이에 대해 반씨는 "1심 판결 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기약조차 가물거물한 상태에서 항소심을 한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약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소송이 힘들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도 의료분쟁 시 피고가 되는 의사나 병원 측이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서가 재판에 재판이 늦춰지는 폐단을 인식하고 있다. 의료분쟁 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나 재해에 의한 장애인단 등에 협회들의 감정서가 증거자료로 제출

#### ■반모씨의 의료 소송 일지

2008.10	반모씨와 병원 간 의료분쟁 발생
2009.09	반씨, 병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0.12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1.01	병원 측 항소장 제출
2011.08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감정속탁서 발송
2012.02	대한의사협회 감정서 재판부 제출
2012.03	변론
2012.04	항소심 선고 예정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형사·민사소송도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재우 부장판사는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진료기록 감정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제출이 너무 늦어 재판에 지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측은 "진료기록 감정서 요청이 매달 100여 건에 달해 제출까지는 3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보조금 유용·교비 횡령 혐의 이호균 전남도의회장 사전 영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국가보조금을 유용하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남도의회 이호균 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목포과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이 대학 산학협력단의 학교특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목포과학대 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목포과학대학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벌여왔다. 이 대학은 2006년부터 3년 동안 정부로부터 60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이 중 9억원을 교수 개인 채무 변제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보조금 횡령 액수가 1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비 횡령 사실도 추가됐다.

목포과학대는 그동안 국가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 3명이 구속됐으며 지난 1월에는 검찰 출두를 앞둔 산학협력단 간부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해 2월 경기도 하남시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해 사회 복지학과 신입생 300여 명을 모집해 이 중 수강시간을 채우지 못한 200여 명에게 부정 학위를 준 혐의의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533) 김장두



## 날 풀리자 나무도둑까지 날뛴다

### 천리향·도로변 묘목 절도범 잇따라 검거

날이 풀리면서 각종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무 도둑까지 날뛰고 있다.

유모(63)씨는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조정나무 전시장에서 주인 최모(52)씨 물레 시가 2만원 상당의 천리향 1그루를 훔쳤다가 경찰에 걸려 불매를 잡혔다. 집 화단에 심기 위한 목심에 서었다.

28일에는 도로변 화단에 식재할 묘목을 훔친 김모(47)씨가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에 광주시 북구의 모 대령마

트 앞 도로변에 쌓아둔 광주시 동구청 소유의 묘목(남천나무) 33그루, 시가 16만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간 혐의다.

경찰은 벌금 수배중이었던 김씨가 자신의 집안에 묘목, 자전거, 철근 등 장물 의심물건을 보관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검거했으며,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봄철은 주택가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 등을 철저히 하고 길에 놓아둔 물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80대 실종 노인 숨진채 발견

치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노인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오전 11시에 광주시 서구 유촌동 한 논에서 A(여·8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 김모(여·49)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년 전부터 치매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서구 치평동에서 딸(60)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난 10일 경찰에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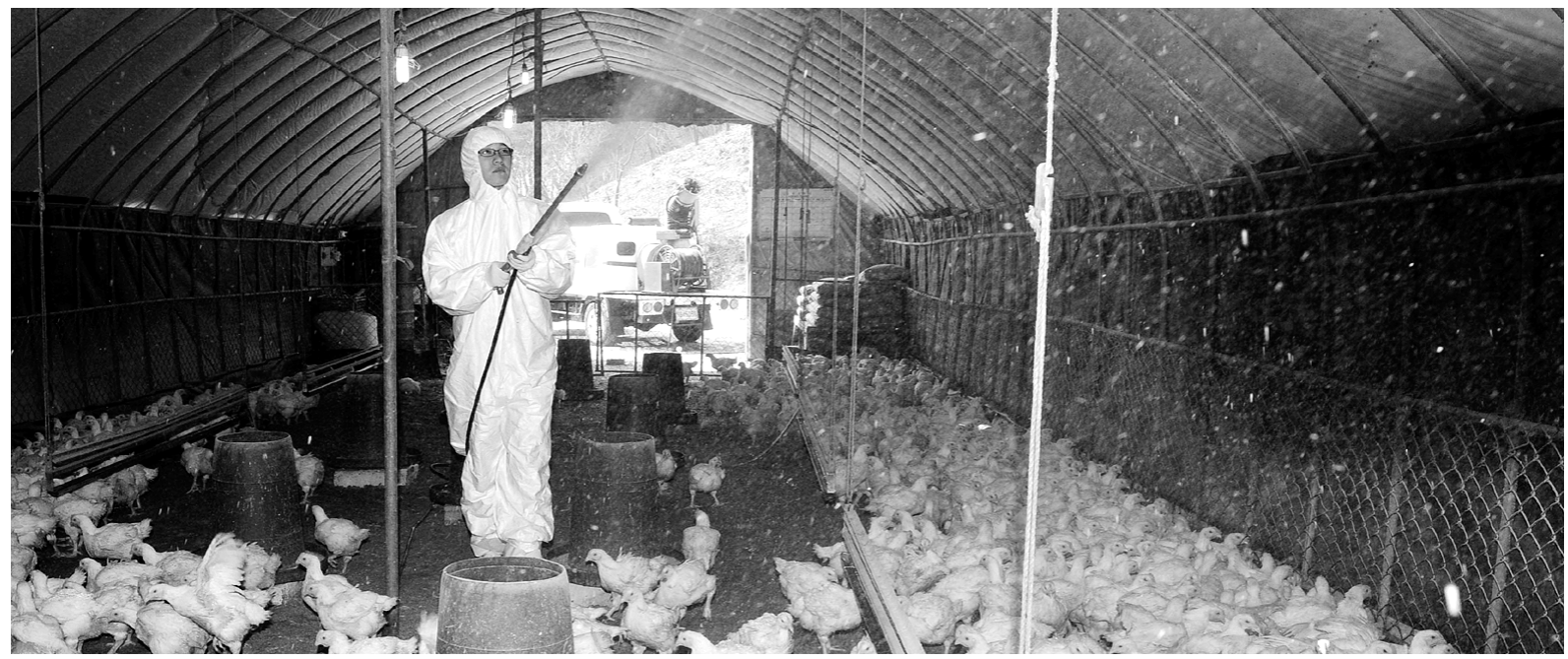
### 장인·장모 처벌 요구한 못된 사위

○"탈과의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사위와 몸싸움을 벌인 60대 부부가 사위의 신고로 경찰서행.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64)씨와 부인 B(54)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3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사위 C(34)씨의 차량정비업소에서 C씨의 어깨 등을 손으로 밀쳤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C씨와 장인·장모 등이 대화 과정에서 서로 맞치는 정도의 몸싸움을 벌였다"며 "장인·장모는 처벌 의사가 없었는데, 사위가 화를 식이지 못하고 법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귀띔.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시예방 닭 사육농가 방역

철새 이동 시기를 앞두고 광주시 북구청 경제정책과와 농축산팀 직원이 28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치동의 닭 사육농가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교육청 '교사 특채 비리' 본격 수사

### 검찰, 전남도교육감 직무실 압수수색도

광주시교육청의 교사 채용 비리와 전남도교육감의 과거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본보 3월14일 6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28일 광주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광주시교육청의 사립교사의 공립학교 채용 비리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서류검토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 담당과장과 실무자, 심사위원 등 3명을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수사는 성격 조사를 통한 합격자 바뀌기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초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 5명을 공립 특별 채용 과정에서 애초 내정했던 교사 1명이 불합격하자 접수된 조작성에 합격자인 사실이 교과부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또 이날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부는 전남도교육청에 수사관을

급파해 장 교육감 직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 교육감의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총무과와 비서실, 대학발전기금 담당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순천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시절 대학발전기금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장 교육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구속 영장 기각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문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룰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

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자녀가 자본을 가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선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선 회장을 소환해 횡령·탈세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연남뉴스

##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 물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 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할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빠지고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특허특제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미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탕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한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할 것입니다.(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영** 을 검색하세요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정도 하는게 적당하다. 면지, 면티, 면안팔 착용 후 휘림트 종창옷을 종이컵 한컵과 따뜻한 물을 한컵용량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 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 설정하세요).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지 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재운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샤워를 하지 않아도 땀냄새나 끈적거림이 없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종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용출산지 | 광성지름 | 25,000원  
복지는마음 | 15,000원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문의: 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원치, / 경력이 되살아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나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참옷 골드

울담발

가족 건강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안도 맹산 포수들의 비법을 되살렸습니다.  
웃샘마을 맹산 울담발 진액, 그 원료가 더합니다.  
게르마늄 광천수로 유명한 삼남리 186미터 원수 사용  
이대째 울나무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 웃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호 주산지를 찾아 해매면 사람이 지하 186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을 만들었습니다.

▶ 웃에 대한 슬픈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웃 산업구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 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